

다음은 새로운 길에 관한 시적 화자의 마음을 드러낸 시이다. 상징의 표현 효과를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.

## 새로운 길

윤동주

내를 건너서 숲으로  
고개를 넘어서 마을로

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 
나의 길 새로운 길

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 
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

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 
오늘도…… 내일도……

내를 건너서 숲으로  
고개를 넘어서 마을로

글쓴이

윤동주(1917~1945) 시인. 시집으로 『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』가 있다.